

# ‘전남형 만원주택’ 210호 4개 군 우선 공급

### 전남도, 고흥·보성·신안 50호...진도는 군비 추가 60호 건립 편익 시설 갖춘 도심 위치...“청년 중심 전남 행복시대 만들 것”

청년 인구 유출에 따라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전남이 ‘전남형 만원주택’ 210호를 고흥·보성·진도·신안 등 4개 군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각 군에 50호씩 공급하고, 진도는 군비를 더해 10호를 더 짓기로 했다.

전남도는 3일 “청년들이 인구소멸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을 줄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첫 대상지로 고흥 등 4개 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남형 만원주택’ 1000호 공급을 발표한 뒤 전남도는 조례 제정 등 신속하게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지난 2월 인구감소지역인 16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

바 있다. 16개 군 가운데 9개 군이 공모에 참가해 전문가로 구성된 전남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했다.

이번 사업 대상지들은 도심에 자리해 학교 및 보육시설, 판매시설, 주민 편의 시설 등이 갖춰져 입주 청년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고흥과 보성은 나로우주센터와 관련된 우주항공산업과 스마트팜 관련 종사자, 순천대의 글로벌30 선정에 따른 일자리 수요 증가 전망이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진도와 신안은 섬 지역 숙박형 국내관광 활성화로 관광객저업

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요 증가와 수산업업을 위해 귀여하는 청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등이 이번 선정에 영향을 끼쳤다.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은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과 청년을 위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신축해 보증금 없이 월 1만원의 임대료로 가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도비, 광역소멸기금 등 284억원이 투입된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배려하기 위해 추진되는 만큼, 최초 거주 기간도 4년으로 기존 공공임대아파트의 2년보다 길다. 신혼부부는 아이를 한 명 출산할 때마다 3년씩 연장할 수 있다. 청년, 신혼부부 등은 월 임대료를 1만원만 부담함으로써 절감된 주거비를 모아 자립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월 1만원의 임대료가 지속되도록 운영

비 재원 별도 마련을 위해 총 680억원 규모의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을 전국 최초로 조성하기로 하고, 지난 3월 조례를 제정했다.

전남형 만원주택의 원활한 추진과 도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전남도 주거복지센터를 7월까지 전남개발공사에 설치해 도민 입장에서 주거복지 서비스와 주택사업 및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한편, 입주 청년의 불편이 없도록 입주단계 상담부터 준공 후 운영관리까지 전담토록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만원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입주해 행복할 삶을 영위하도록 건설 이후 불편함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청년층 맞춤형 정책을 지속 개발하고 충분한 지원을 통해 청년 중심의 대도시 전남 행복시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월 1만원의 임대료가 지속되도록 운영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광주시 확대 운영

### 현장방문단 구성해 해결책 제시

광주시는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와 지역기업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는 광주시가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현장중심·수혜자 맞춤형 규제 개선 기구로,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장기화하고 있는 경기침체를 해소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투자 촉진, 일자리 확대, 소상공인 부담 해소 등 지역현안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중·장기 해결방안을 도모할 방침이다.

민생규제 해소를 위해 지역 소상공인, 업종별 대표·단체 등과 간담회를 갖고 선제적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규제개선 전담팀(테스크포스)에 참여하는 사업부서장을 규제책임관으로 지정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중앙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강화한다.

배일근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고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기업 경영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각종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는 ‘행동하는 광주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도, 현장 중심 정책으로 청렴도 높다

###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마련...45개 과제 중점 추진

전남도가 청렴 건설 확대 등 현장 중심의 ‘2024년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4등급)가 2022년보다 2단계가 하락함에 따라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취약한 부분에 대한 개선에 나서 관련 부서 및 직원의 의견을 반영해 신규 청렴 정책을 구상했다.

신규 청렴 정책은 반부패·청렴 추진체계 고도화, 부패 취약 분야 집중관리를 통한 고객만족 강화, 부패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청렴문화 확산 및 대외협력 강화 등 4대 추진 전략 45개 세부 과제를 담았다.

특히 청렴도 취약 분야인 외부 제과도 향상을 위해 도민에게 더 다가가고, 제과하는 현장 시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세부 추진 시책은 감사관실 공무원이 부패 위험이 있는 공사·용역 및 보조금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해결하는

‘찾아가는 청렴컨설팅’을 확대 실시하고, 외부 민원인에게 업무처리 중 불편사항 및 부패행위 신고 방법 안내 등 ‘청렴해피콜’과 ‘청렴지킴이 문자서비스’를 강화한다.

신규 시책으로 외부 청렴도와 관련된 부서들 감사관·청렴지원관이 직접 방문해 직원 애로사항 청취 및 청렴도 향상 방안을 논의하는 ‘찾아가는 청렴정담회’도 개최한다. 일선 현장 직원의 직무수행 개선을 위한 청렴교육 및 시설관리·공사 분야 관련 감사 지적 사례를 소개하는 ‘청렴-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부패행위 발생 취약 분야인 도시건설주택 등 대규모 공사 및 보조금 분야 위주로 ‘특별 직무감찰’을 확대하고, 위반 시 최고 징계 및 관리자·업체 연대책임을 적용하는 등 공직자 부패행위를 사전 차단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전남도공무원노조와 합동으로 조직 내 갑질 행위와 잘못된 관행문화 등을 개선해 내부 청렴도 향상도 도모한다. /유현석 기자 chadol@



저수지 스마트 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점검 김영록 전남지사가 3일 오전 영암군 신북면 용산저수지 스마트 정보시스템 구축 현황을 방문, 관계자로부터 영농기 물 관리 및 자연재해를 사전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정보시스템 구축 현황에 대해 청취하고 저수지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환경친화축산농장에 전남 3곳 추가...전국 절반 10곳으로 늘어

### 장성 ‘성산중둔장’ 진도 ‘유로팜’·‘이유팜’ 3곳

장성 ‘성산중둔장’, 진도 ‘유로팜’·‘이유팜’ 등 3곳이 농림축산식품부의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로써 전남지역 환경친화축산농장은 총 10개 농장으로 늘어 전국(20곳)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축산농장의 환경이 타지역보다 신속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환경친화축산농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적 축사 관리, 농장 경관의 조화, 가축 분뇨 적정 관리·이용 등에 충실한 축산농가를 농식품부 장관이 평가해 지정한다.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는 농림축산

식품부의 축산악취개선사업과 친환경축산직불금(유기·무항생제 축산물) 20% 추가 지원, 유통 활성화 및 경영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성산중둔장은 2017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2016년 친환경 축산물 인증, 2009년 해협(HACCP) 인증 등을 받았다. 또한 축사 내 액비순환시스템을 설치해 악취 발생 감소 등 가축 사육 환경 개선으로 돼지 폐사율을 줄였다. 출하일령도

단축에 모든 연간 출하 수 26마리로 전국 평균(18마리) 보다 1.4배 높은 선도 축산농가다.

오재근 성산중둔장 대표는 대한한돈협회 전남도협회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2016년 전남도 농어민대상, 2021년 축산 선진화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유로팜과 이유팜은 2021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2022년 해협(HACCP) 인증 등을 받았다. 축사 내 액비순환시스템을 설치, 악취 저감 등 가축 사육 환경 개선 선도농가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추진

### 시, 2000명에 10만원 상당 지원 30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광주시는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문화 및 여가활동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서비스 분야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올해 2억원을 투입해 농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19세 이상 75세 미만 여성농업인 2000명에게 연간 10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상당의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할 계획이다.

바우처카드는 영화관, 서점, 스포츠센터, 안경점 등 다양한 복지·문화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의료(병원·약국) 및 유희, 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바우처카드 신청을 희망하는 여성농업인은 신분증과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지참해 오는 30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첨가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1997 태림인더스트리㈜ 법인설립  
2011 수출백만달러, 수출유공자 수상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모범중소기업인)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인성  
2023 국제청 모범업체 표창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